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82780

2020年 02月

教育學碩士(漢文教育)學位論文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과 「내성지(奈城誌)」의 작가의식 비교연구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文教育專攻

범 경 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과 「내성지(奈城誌)」의 작가의식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Writers' Consciousness of 「Wonsaengmongyurok」 and 「Naeseongji」

2020년 2월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文敎育專攻

범 경 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과 「내성지(奈城誌)」의 작가의식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Writers' Consciousness of「Wonsaengmongyurok」and「Naeseongji」

指導敎授 정 길 수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文敎育專攻

범 경 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범경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韓睿媛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朴鍾勳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鄭吉秀 인

2019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目 次

ABSTRACT ····· Ⅲ

Ⅰ. 서론

1. 연구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3
3. 연구 방법 ····· 5

Ⅱ. 「원생몽유록」과 「내성지」 작가와 저술 배경

1. 「원생몽유록」 작가와 저술배경
   1) 임제의 생애 ····· 6
   2) 「원생몽유록」의 저술배경 ····· 10

2. 「내성지」 작가와 저술배경
   1) 김수민의 생애 ····· 13
   2) 「내성지」의 저술배경 ····· 16

Ⅲ.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의 등장인물을 통해본 작가의식 비교

1. 등장인물 비교
   1) 단종 ····· 19
   2) 사육신과 남효온 ····· 23

2. 작가의식 비교
   1) 「원생몽유록」에 나타난 작가의식 ····· 35
   2) 「내성지」에 나타난 작가의식 ····· 4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결론 ····· 46

참고문헌 ····· 4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Writers' Consciousness of Wonsaengmongyurok and Naeseongji

Beam Kyeong-Min
Adviser : Chungkil-SooLitt.D.
MajorinSino-KoreanLiterature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ChosunUniversit

「Wonsaengmongyurok」 and 「Naeseongji」 are dream novels. The former is a novel written by Lim Je in the 16th century describing a dream that the author who was invited to a party met Danjong and the Sayukshin. The latter is a novel written by Kim Soo-Min in the 18th century describing a story that the author met Danjong and his loyal subjects in a party and recited poetry.

Likewise, the 「Wonsaengmongyurok」 and the 「Naeseongji」 dealt with a similar theme but it was thought that there would be somewhat difference in awareness of the authors as their historical backgrounds were differ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16th and 18th centuries when the two novels were written and the authors' lives and writing background. Then, this study analysed the authors' awareness through characters appearing in the two novel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the 16th century when the 「Wonsaengmongyurok」 was written, Joseon's ruling class was changed from Gwanhakpa to salimpa, and the Confucian world view that put an emphasis on cause and fidelity were revealed. Lim Je as an author of 「Wonsaengmongyurok」 had extensive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th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eriod of intense party strifes. Park Gye-Hyon was one of the important persons Lim Je had relations with. It was known that Park Gye-Hyon introduced 「Yuksinjeon」 to Lim Je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writing of 「Wonsaengmongyurok」.

In the 18th century when 「Naeseongji」 was written, Joseon had big changes through Byeongjahoran. Popular culture appeared and Confucianism was replaced by new ideologies and religions through contact to western culture. Although diverse cultures appeared, Kim Soo-Min was a conventional Confucian who paid loyalty to the Ming with the great cause. It was discovered that he wrote 「Naeseongji」 describing Danjong, Emperor Gunmun of Ming Dynasty and his loyal subjects who was thought to have ideal fidelity he pursued for as Kim Soo-Min paid attention to Danjong and his loyal subjects,

Second, This study analysed Dangjong, Sayukshin(Seong Sam-Moon, Lee Gae, Huh We-Ji, Park Paeng-Nyeon, Yoo Seong-Won and Yoo Eung-Boo) who commonly appeared in the two novels, and words and behaviors of Nam Hyo-Won to understand the author's thoughts that were expressed in the stories.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author's consciousness through Mongyuja.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as Danjong was dethroned by his uncle Suyangdaegun and was exiled to be dead, both of the novels expressed his sorrowful and pathetic life through poetry. The Sayukshin expressed their loyalty to the king through poetry in both of the novels. However, part of the Sayukshinwho appearing in 「Naeseongji」 expressed loyalty to the Ming Dynasty. In addition to Danjong and Sayukshin, both of the novels indirectly showed the influence of 「Yukshinjeon」 through Nam Hyo-Won.

In respect to the author's consciousness, this study analysed Mongyuja(the subject who was dreaming) as the author's alter ego and examined it through connection with his life. Wonjahuh as the subject dreaming in 「Wonsaengmongyurok」 was a righteous scholar who like to read. He enjoyed a party in a dream with Danjong and Sayukshin. After he was awaken from the dream, he criticized the situation of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 time with Haewolgeosa. Moomyeongja as the subject of dreaming in「Naeseongji」liked to read『Chun Qiu』. It seems that he respected the Ming Dynasty in considering that he said that he was sorrowful because Joseon did not return a favor it received from Emperor Gunmun. The introduction to the awakening part gave a focus on Emperor Gunmun. Lim Je criticized the Joseon society with Sayukshin's loyalty to Danjong in「Wonsaengmongyurok」while Kim Soo-Min showed definitely that he respected the Ming Dynasty through「Naeseongji」.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목적

본고의 연구대상은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과 「내성지(奈城誌)」이다. 「원생몽유록」과 「내성지」는 몽유록(夢遊錄)의 종류에 속한다. 몽유록은 사회적 모순과 변화 속에서 사대부들의 의식세계를 서술한 문예양식 중 하나이다. 특히 조선 사회의 사화와 당쟁, 그리고 전란 등으로 지배계층에 소외되거나 희생된 불우한 선비들의 불만과 이상을 표출한 소설양식으로 알려져 있다.[1] 몽유록의 양식적 특징은 입몽(入夢)-몽유(夢遊)-각몽(覺夢)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몽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꿈이라는 액자를 축으로 하여 이야기가 진행되고 액자바깥으로 주인공인 몽유자가 어떤 계기로 꿈을 꾸게 되어 꿈속에서 가상체험을 하고 깨어난다는 구조이다.[2]

임제(林悌, 1549~1587)의 「원생몽유록」과 김수민(金壽民, 1734~1811) 의 「내성지」의 공통점은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왕위를 찬탈 당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단종(端宗)과 그의 충신인 사육신(死六臣)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두 작품은 16세기와 18세기에 같은 사건을 주제로 저술되었다. 다른 시기에 저술 되었기에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작품을 지은 작가의 의도와 의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몽유록의 특징 중 하나로 몽유자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몽유자는 작가의 분신으로 몽유자를 통해 작가가 현실에서 드러내고자 한 생각을 몽중세계에서 표출한다. 그래서 임제와 김수민이 몽유자와 단종, 사육신을 통해 드러낸 작가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원생몽유록」이 저술되었던 16세기 조선에서 치열한 당쟁이 벌어졌다. 이런 당쟁을 본 임제는 「원생몽유록」을 조정 대신들과 다른 사육신의 충절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원생몽유록」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단종과 사육신의 심회를 표출하면서고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하면서 당시 사회상과 인간들 또한 고발하고 있다.[3]

약 200년이 지난 18세기에 「원생몽유록」에서 다룬 단종과 사육신을 소재로 한 김수민의 「내성지」가 나왔다. 18세기에는 호란을 겪고 난 후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져 당쟁이 심화되었고 영조로 인해 탕평정치가 본격적

1) 양언석, 『몽유록소설의 서술유형연구』, 국학자료원, 1996, 10면 참조.
2) 육홍타, 「16세기 몽유록 시론」, 『동양고전연구』 19, 동양고전학회, 2003, 30면 참조.
3) 신해진,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998, 102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 추진되던 때이다. 이 시기에 김수민은 노론의 송시열(宋時烈)을 평생 스승으로 삼아 춘추대의에 입각한 의리론을 견지했다. 18세기에는 숙종 때 복위된 단종과 사육신 외 다른 충신들의 신원복구작업을 진행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충과 의를 가장 중요한 이념 가치로 여겼던 김수민 역시 단종과 그를 추종한 충신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다. 「내성지」에 「원생몽유록」보다 많은 충신이 등장하며, 충신들이 지닌 충심의 정도를 더욱 중요시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원생몽유록」과 「내성지」는 유사한 제재를 다룬 작품이지만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작가의식에 다소간의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의 저술배경과 등장인물을 분석하여 두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선행 연구 검토

「원생몽유록」 관련 선행연구는 작가에 대한 연구나 다른 몽유록 작품과 비교하는 연구가 많았고, 「내성지」 관련 선행연구는 「내성지」의 공간적 의미나 담론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먼저, 「원생몽유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병철(2008)은 「원생몽유록」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 속에 녹아 있는 역사적 사실과 인물의 구현 양상을 분석하고 작자 문제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장릉지(莊陵誌)」, 「관란유고(觀瀾遺稿)」, 「추강집(秋江集)」을 토대로 작자는 백호 임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원생몽유록」에 나오는 몽유 과정은 입몽, 몽중, 각몽의 서사 구조를 형성하는 전형적인 환몽 구조라 하였다. 그 속에서 자신의 분신인 몽유자 원생과 「육신전」의 등장인물인 사육신의 대화를 통해 임제가 부조리한 사회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의미에서 「원생몽유록」을 창작했다고 하였다.[4]

조현우(2000)는 「원생몽유록」의 서사구조를 파악하고 '입몽-몽유-각몽'이라는 이른바 몽유구조에서 시점 교체가 일어난 것을 주목했다. 「원생몽유록」의 역사적 인물들과 사건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서사대로 포괄되고 서사 내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원생몽유록」에서 사실과 허구가 어떻게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5]

정출헌(2012)은 「육신전(六臣傳)」과 「원생몽유록」의 인물과 기억서사를 정치학적으로 해석했다. 16세기의 서사문학이 활발하게 창작, 유통되던 시기였고, 성리학적 이념의 확립과 함께 사림정치의 질서가 재편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기록의 힘이나 서사의 힘을 절묘하게 활용한 「원생몽유록」이 창작되었고 「육신전」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보았다.[6]

다음으로, 「내성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해진(2008)은 창작동인을 작가적 동인과 시대적 동인으로 나누어 살폈다. 「내성지」의 창작배경과 시대적 상황 서술에 이어 등장인물간의 대화 분석을 통해 호남 사림, 혹은 호남 서인으로서 지닌 작가 자부심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

---

4) 이병철, 「임제의 원생몽유록 재고」, 『한민족문화연구』 24, 한민족문화학회, 2008, 133~135면 참조.
5) 조현우, 「원생몽유록의 리얼리티 생성 방식」, 『고소설연구』 10, 한국고소설학회, 2000, 172~174면 참조.
6) 정출헌, 「<육신전>과 <원생몽유록> -충절의 인물과 기억서사의 정치학」,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43~44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내성지」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7]

김정녀(2012)는 「내성지」의 양식적 특징이 조선후기 몽유록의 전개과정을 해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내성지」는 작자의 시선이 사회 현실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구상화하는 과정에서 장편화·서사화 지향의 면모를 보였는데 이 점에서 조선후기 몽유록의 지평을 넓힌 작품이라 할 수 있다.[8]이 논문에서는 「내성지」의 전개과정 방식을 연구하면서 「금화사몽유록(金華寺夢遊錄)」과 서사전개 방식이 비슷하다고 하여 자주 언급되지만, 「내성지」와 비슷한 내용의 「원생몽유록」을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 「원생몽유록과」과 「내성지」 각 작품에 관한 연구, 각 작품과 다른 작품의 비교한 연구들은 많았다. 하지만, 사육신을 공통 소재로 삼은 두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의 저술배경과 등장인물을 비교하여 작품에 투영된 임제와 김수민의 작가의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7) 신해진, 「내성지의 창작동인 탐색」, 『국학연구론총제』 1, 택민국학연구원, 2008., 36~39면 참조.
8) 김정녀, 「내성지의 공간과 기억의 재구성」, 『민족문학사연구』 49, 2012, 195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원생몽유록」과 「내성지」가 저술된 16세기와 18세기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해보고, 이를 통해 작가의 생애와 저술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의 등장인물을 분석하고 작가의 의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의 작가와 저술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16세기 조선은 지배층이 관학파(官學派)에서 사림파(士林派)로 변하였고 문학에 있어서도 명분과 절개를 강조한 성리학 세계관이 드러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문학인 「원생몽유록」의 저자 임제의 생애와 함께 16세기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는 한편 「원생몽유록」에 큰 영향을 준 「육신전」과 견주어 보녀 「원생몽유록」의 저술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18세기의 인물인 김수민은 춘추대의 사상을 가진 전통적인 성리학자였다. 김수민의 생애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알아보고 김수민의 춘추대의적 사상과 소중화주의가 표출된 작품 「내성지」의 저술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에 나오는 공통적인 인물 단종, 사육신(성상문, 이개, 허위지, 박팽녀, 유성원. 유응부) 그리고 남효온의 극 중 언행을 비교함으로써 작가의식을 추적하는 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작가의 분신인 몽유자 원자허(元子虛)와 무명자(無名子) 분석에 초점을 두어 작가의 생애와 결부하여 작가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원생몽유록」과 「내성지」 작가와 저술 배경

1. 「원생몽유록」 작가와 저술배경

1) 임제의 생애

임제는 오도절도사, 평안병사, 제주목사를 지낸 부친 임진(林晋)과 좌참찬 윤효손(尹孝孫)의 4세손인 남원 윤씨 사이에서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나주이며 자는 자순, 호는 백호(白湖)·겸재(謙齋)·풍강(楓江)·벽산(碧山)·소치(嘯癡) 등이 있다. 임제는 20세 이전에는 중부(仲父)인 임복(林復)을 스승으로 삼아 형제들과 함께 시문(時文)을 계속 공부해왔다. 시를 통해 형제간의 우애와 정감을 나누었다. 임제의 호방한 성격은 이런 가문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9]

임제가 21세가 되었을 때 학문에 뜻을 두어 학문을 배우고자 대곡(大谷) 성운(成運) 문하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운의 가르침은 임제의 학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 백호는 일찍이 학업에 뜻을 두어 책을 지고 스승을 찾아 대곡 성운을 종산 아래로 가서 뵙고 『중용』을 읽었다. 이내 속리산으로 들어가 의리를 탐구하여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 선생의 뜻을 깊이 탐구하였다.[10]

성운 문하에서의 수학기간은 과거에 수차례 낙방하고 방랑을 거듭하던 임제에게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현실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되었다.[11]

임제는 선조 9년 때 문과에 급제하여 북평사라는 외관직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호연하고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영리에는 뜻이 없었다. 이러한 자질을 지닌 임제는 교류관계에 있어도 서로 간의 이익을 따지는 관계 보다는 자신과 뜻이 맞는 인물과 사귀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임제의 교류관계를 살

---

9) 조상열, 「백호 임제 문학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12~13면 참조.

10) “白湖早歲有志于學, 負笈從師, 尋大谷成先生, 于鐘山之下, 受中庸, 仍入俗離山, 探究義理, 累經寒暑, 探得先生旨趣.”(허서, 『백호집』 발문, 신해진, 같은 책, 122면 재인용)

11) 신해진,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998, 111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펴보면 이이(李珥)·정철(鄭澈)·이달(李達)·백광훈(白光勳)·양사언(楊士彦)·허균(許筠) 등이 있다. 서인인 이이, 정철과도 서로 교류했고 동인인 허균과도 서로 교류했다는 사실에서 그는 당파를 초월한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달 같은 서자와도 자주 사귄 것은 그가 계급을 초월한 교류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12] 임제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교류는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기생과의 교류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평양의 명기 한우, 일지매, 황진이 등이 그의 시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사대부라는 자신의 신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기생들과도 시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그의 시나 소설에는 다양한 정서가 표현되었다. 임제의 교류 양상은 신분, 계급을 초월하는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13]

이 외에도 임제는 왜구가 소요를 일으키고 있을 때 임제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 박계현(朴啓賢)을 처음 만나게 된다. 박계현은 전라도사로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나주에 주둔해 있었다. 박계현과는 서로 많은 시를 주고받았으며 그 시가 약 20여수 정도 된다.[14] 박계현과의 교류는 임제의 소설 「원생몽유록」의 저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임제의 교류 관계에서 보여준 자주적인 성향은 그가 조정을 바라본 시각에도 나타난다. 임제가 급제를 하고나서 조선의 조정 상황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부조리한 당쟁만이 보였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질시하면서 편당을 지어 몰려다니는 조정 대신들이 임제의 의리가 있고 호방한 성격과는 맞지 않았다.

임제가 당시 조선의 조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식을 나타난 다음 시 한 수가 있다.

도랑물에 노는 물고기 그 운명 가련하다
노련한 어부 떠나자 해오라비 엿보네
차라리 지느러미 떨치며 창해로 돌아가
드넓은 바다 속에 마음껏 다니느만 못하지.[15]

---

12) 임보연, 「백호 임제의 변새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33면 참조.
13) 임보연, 앞의 논문, 33면 참조.
14) 신해진, 앞의 책, 112면 참조. 관련 내용은 저술배경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15) “滿水游魚命可悲, 豫且纔去鷺鷥窺. 莫如振鬣歸滄海, 萬里雲濤任所之.”(임제, 『백호집』 3, 김인아, 「백호 임제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108면 재인용)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 시는 임제의 「구수관어(溝水觀魚)」라는 시이다. 좁은 도랑물에서 헤엄치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물고기를 자신의 처지에 비유하였다. 어부나 애로라비가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물고기의 뜻이 담겨있다. 이는 임제의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드러나 있다. 당시 당쟁 때문에 자신이 언제 파급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구차하게 연맹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16]

임제가 동서분당 과정의 당대 정치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그의 외손인 허목(許穆)이 쓴 글에서 추론을 할 수 있다

> 문사로 이미 세상에 이름이 높아갔는데, 이때 동서분당의 물의가 일어나 선비들은 명예를 다투어 서로 헐뜯고 끌어당기고 하였다. 그러나 공은 분방하여 어울리지 않은데다가 또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은 까닭으로 벼슬이 현달하지 못했다.[17]

위 글을 보면 임제는 벼슬에 대한 선망과 흥미는 점점 희미해져가고 현 조정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벼슬에 대해 환멸을 느껴 유람을 하고 시를 지으면서 여생을 마감하였다.

임제는 사대부들의 봉건지배체제의 모순과 함께 몰락해가는 역사전개과정을 풍자, 비판한 작품을 남겼는데 「원생몽유록」, 「화사(花史)」, 「수성지(愁城誌)」등이 그 대표작이다.[18]

「원생몽유록」에는 충의와 현실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세조의 왕위찬탈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몽유록 양식을 통해 비판적 시각에서 과거 역사를 회고했다. 「수성지」는 작자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근심 걱정을 시와 술로 달래며 살아가는 자전적 작품이다. 「화사」 또한 식물세계의 치란흥망을 그려 당대사회를 풍자하고 이상적 왕도정치와 사회를 희구하였다.[19]

임제는 사람 간 교류에 있어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

---

16) 김인아, 앞의 논문, 108면 참조.

17) “文詞旣日有名於世, 而於是東西明朋黨之議起, 士爭以名譽, 相吹噓引援, 而公跅弛不群, 又不喜卑事人, 以故官不顯.”(허목, 「임정랑묘갈」, 『백호집』 부록, 신해진, 앞의 책, 113면 재인용)

18) 조상열, 「백호 임제 문학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110면 참조.

19) 소재영, 「임제소설의 문학사적 위상」, 『국학연구론총』2, 택민국학연구원, 2008, 9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었고 풍류를 즐길 줄 알았다. 그러면서 당쟁이 심했던 시기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호방한 정신과 시대적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문학사에서 임제는 다양한 소재로 시대를 풍자한 많은 시와 소설을 남긴 작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원생몽유록」의 저술배경

「원생몽유록」은 단종 폐위사건을 다룬 몽유록이다. 이 소설에는 단종과 사육신이 등장한다. 세조 때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이라고 칭하였고, 사육신에 대해서도 역사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명종 초년에 윤해평(尹海平)이 「육신전」을 인쇄해 반포하기를 청하였다. 명종은 불같이 화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명종 때 까지만 해도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금기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명종 때까지만 해도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다. 선조 때 이이가 선조에게 「육신전」 읽기를 권하였으나 선조는 역정을 내어 무산된바 있다. 율곡 이이 외에 「육신전」을 또 추천한 이가 있었으니 영월군수로 있었던 박계현이다. 박계현은 제문을 지어 단종의 원혼을 달래주었던 박충원(朴忠元)의 아들이다. 「육신전」을 권하는 이가 많아지면서 선조 9년에 이르러 「육신전」은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20]

판서 박계현이 경연에 입시하여 "성삼문은 참으로 충신입니다. 「육신전」은 남효온이 지었는데, 상께서 가져다가 보시면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 아뢰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조는 박계현의 생각과 달랐다. "엉터리 같은 말을 많이 써서 선조(先祖)를 모욕하였으니, 나는 앞으로 모두 찾아내어 불태우겠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 말하는 자의 죄도 다스리겠다"며 노발대발했다. 사실 박계현이 「육신전」을 거론하며 성삼문을 충신이라 건의한 것은, 보름 전 선조의 다음과 같은 분부 때문이었다.[21]

> 경연관이 아뢴 바 노산군과 연산군의 묘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지낼 일과 우리 동방 역대 군왕의 분묘를 수치하고 초목을 금하게 한 일과, 전대의 충신·의사로서 나랏일에 죽은 자의 묘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지낼 일과, 최치원·안유·설총의 분묘가 있는 곳을 살펴서 아뢸 일에 대해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도록 명하였다.[22]

선조는 왕위에서 쫓겨난 노산군과 연산군을 비롯하여 지난날의 충신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추숭 사업을 벌이고자 했다. 선조의 독자적 결정이라기보다

---

20) 우쾌재 편, 『원생몽유록-작자 문제의 시비와 의혹』, 박이정, 2002, 30면 참조.
21) 정출헌, 앞의 논문, 21면 참조.
22) 『선조실록』 선조 9년(1576) 5월 15일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연관의 요구에서 추동되었지만 네 차례의 사화로 상징되는 퇴폐의 시절을 끝내고 마침내 조정을 장악한 사림들은 얼룩진 과거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23] 그래서 박계현이 선조에게 「육신전」을 소개시켜 주었지만 단종과 사육신을 복위하는 일에는 소용이 없었다.

위의 내용은 「원생몽유록」의 저술배경에 영향을 끼친 「육신전」이 알려지게 된 내용이다. 「원생몽유록」의 창작시기는 임제가 박계현을 만난 선조 전반 무렵으로 추정된다. 임제는 선조 8년에 왜구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호남지방에 내려온 전라감사 박계현의 막하에서 포의로 만나게 된다. 속리산에 있던 임제는 고향인 나주에 내려오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망년지기로서 시문을 주고받으며 강개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24]

이 시기에 조선은 내부적으로 전조(銓曹)의 낭관자리를 놓고 김효원(金孝元)과 심의겸(沈義謙)이 대립함으로써 그 발단이 시작 되었다. 김효원을 지지하는 일파는 동인(東人), 심의겸을 지지하는 일파는 서인(西人)으로 갈라져 분열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시정에 대해 잘잘못을 간할 수 있는 충절의 선비들이 관료에서 떠나고 있었다. 변혁지향적인 인물은 기피되고 정치현실에 안주하려는 인물들이 등용되었기에 청렴결백한 선비들이 벼슬을 그만둔 사례가 많았다.[25]

임제는 사림들의 분열을 통해 청렴한 선비들이 벼슬을 많이 그만두는 현실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 박계현이 추천한 「육신전」의 사육신들은 현시대의 신하들과는 다른 충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감동을 받아 단종과 사육신에 대한 「원생몽유록」을 지었을 확률이 높다.

앞서 말한 「원생몽유록」의 창작 시기가 임제의 포의시절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기록 때문이다.

> 포의 때 조중봉(조헌)과 함께 육신사를 배알하고 돌아왔다. 그로 인해 「수성지」와 「원생몽유록」을 지어서 충성과 분개의 격렬한 심회를 나타내었다.[26]

위의 글을 살펴보면 임제가 29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배수된 후 포의시절에 사육신에 대해 듣고 「원생몽유록」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

23) 정출헌, 앞의 논문. 18면 참조.
24) 우쾌재 편, 앞의 책, 202면 참조.
25) 신해진, 앞의 책, 114~115면 참조.
26) “布衣時與趙重峰, 謁六臣祠而還, 因著愁城誌, 及元生夢遊錄, 以寓其忠憤激烈之懷”(「林氏宗家家傳 通文」, 신해진, 같은 책, 115면 재인용)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선조 때는 사림의 정치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고 이미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나고 있는 사회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임제는 이런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불만도 많았다. 이처럼 임제는 「육신전」을 읽고 영향을 받아 자신이 처해 있는 당대 현실에 대한 풍자성 「원생몽유록」을 통해 나타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내성지」 작가와 저술배경

1) 김수민의 생애

김수민은 한 평생 과거를 포기하고 오직 향리의 한 사림으로 학문연구에만 78년 전 생애를 바쳤다. 그리고 별세 후 철종 6년에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에 추증되었다. 그의 성품은 천성이 침착하고 평정하며 소박해서, 뜻이 깊고 자상하였다. 또한 선조들의 언행을 본받고 새로운 사상과 학풍을 배웠으며, 소중화에 젖어 있었던 노론의 입장에서 춘추대의를 지켜가며 향리의 전통적인 성리학자이자 지식인으로서 일생을 보냈다.『춘추』와 주자의 글을 애독하였으며 송시열 사상의 핵심임 정직을 삶의 지표로 삼았다고 한다.[27]

> 명은(明隱)은 부풍(扶安)사람이다. 집안이 대대로 주(周)를 높여 그 뜻을 지키고자 그것으로 자호를 삼았다. 바탕과 성품이 소탈하나 완곡하여 집안사람과 생업을 돌보지 않고 책 읽기만 좋아했다. 더욱 『춘추』와 주자의 글을 애독하였으며, 우암의 문장에서 곧을 직(直)자를 골라내어 천 근의 짐으로 삼았다. 세상의 움직임과 잘 맞지 아니하여 주먹으로 맞고 발길로 차이는 꼴이 되었으나 일찍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28]

위에 글처럼 김수민은 송시열의 학문를 삶의 지표로 삼았다. 그는 송시열이 일생동안 자신의 사상과 생애를 지켜왔던 '직(直)'의 철학을 존중하면서 그로부터 솔직함과 정직이 인생의 주체적인 삶의 길임을 배웠다.[29]

이렇게 그는 명이 망한 이후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화를 차지한 100여 년이 지난 시대에 살면서도, 청의 간섭이 심한 세상을 불의의 세상이라 하여 부도한 짓을 감행하는 북쪽을 향하여는 앉지도 않았다. 따라서 명은은 대명을 위한 복수심에서 '명나라에 은둔한다'는 뜻으로 자호를 명은이라고 지었다.[30]

---

27) 신장섭,『명은 김수민 문학연구-기동악부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1996, 18면 참조

28) "明隱子扶風, 家世尊周, 以守其志, 因以自號焉. 質性疎迂, 不事家人生業, 好讀書. 尤眷眷於春秋朱書, 尤翁之文, 拈出直之一字, 以爲百十斤擔子, 寡合於世動, 遭拳踢, 不曾駕言."(김수민,「明隱齋自狀」,『명은집』 권9, 신해진 역주,『譯註 奈城誌』, 보고사, 2007. 279면 재인용)

29) 신장섭, 앞의 책, 21면 참조.

30) 신해진 역주, 앞의 책, 279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렇게 김수민의 생애를 보면, 그는 정치적으로는 노론에 속하면서 춘추대의 명분론에 투철했던 향촌사회의 한 지식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존완양이이 있었다.

김수민은 한평생을 선비의 신분으로 학문에 자신의 이상을 실현했다. 그가 흠모한 인물 중에 도연명(陶淵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수에 관한 시가 그의 문집 중에 다수 차지하고 있다. 그는 실학이 융성하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도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리학을 주로 연구하였다. 그러면서 도덕적 실천과 교육에도 세심한 연구를 보여주고 있어 유교적 도덕의 실천과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가 청의 연호로 내린 선조들의 교지를 바꿔 내리도록 하여 왕과 대신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것은 대의를 지킨 강직한 선비 정신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31]

그의 사상이 잘 들어나는 일이 하나 있었다. 그의 나이 64세 때 「존주록」의 일로 상경한 것이 그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문집 도처에서 스스로 상기하고 있고 비문을 쓴 이서구도 그 글의 머리에 기록해 놓았다.

정조 21년에 만력 이후 우리나라에서 명나라를 위해 의리를 지킨 시말을 기록한 「존주록」이라는 책을 편집하기를 명했는데, 다음해인 무오년에 김수민이 조정에 글을 올려 그의 집안사람 일곱 명이 그 책에 수록될 수 있게 하였고, 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중 세 사람은 벼슬을 추증받았다. 이 일에 감읍하여 쓴 시가 명은집의 첫머리에 실렸는데 그 시의 서에서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적고 있다.[32]

> 내가 정사년 봄에 조상들의 「존주록」 일로 상경하여 이참판서구, 성위원대중을 만나 조상의 존양지의를 부연설명하였다. 참판은 "상으로부터 마침 춘추를 편찬하도록 명받았기에 입전할 겨를이 없습니다."하여, 위원에게 서신을 보내 입전하는 뜻을 부탁하였다. 위원이 이에 그 언록 가운데 돈촌·담허·좌간·춘암·백파·오현의 춘추지의를 써서 합하여 일전으로 하였다.(···)다음해 늦봄에 상께서 선조 삼세칠절을 포상함을 입어 만력 종정의 은혜로운 조명을 받들고 내려왔다.[33]

---

31) 신장섭, 「한국 악부시의 특질과 김수민의 기동악부」, 『겨레어문학』 15,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149면 참조.

32) 신재홍, 「명은 김수민의 내성지 검토」, 『국어국문학』 105, 국어국문학회, 1991, 145면 참조.

33) "余丁巳春, 以先世尊周錄上京, 見李參判書九, 成渭原大中, 敷陳先祖尊攘之義, 參判曰: 自上方命編春秋, 無暇立傳, 遂致書於渭原, 囑以立傳之意, 渭原如其言錄中 書陶邨澹虛在澗春巖白波五賢春秋之義, 合爲一傳···翌季春 上言蒙褒先祖三世七節, 奉萬曆崇禎恩詰下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신의 선조들은 「존주록」에 수록되도록 하였는데 이 일은 김수민의 사상과 면모를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다.

김수민이 활동했던 18~19세기에는 소설시대라 일컬을 만큼 소설이 크게 성행하였다. 한문소설보다 국문소설이 더욱 융성했지만 한문소설도 국문소설과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발전을 했던 시기였다.[34] 이 시기는 문학에서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사상에서도 실학이 발달하여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이 도입되던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김수민은 자신의 사상을 잃지 않은 강직한 선비였다.

來矣."(김수민, 「周錄事實并序」, 『명은집』 1권, 신재홍, 앞의 논문, 145면 재인용)

34) 이상구, 「17~19세기 한문소설의 전개양상」, 『고소설연구』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23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내성지」의 저술배경

「내성지」는 1757년 김수민의 의해 창작된 작품으로 조선후기에 창작된 대개의 몽유록들이 그러하듯이 조선전기 몽유록 작품들이 사용한 바 있는 다양한 서사 전개 방식을 모방하거나 그 축적된 창작관습들을 재구성하고 있는 작품이다.[35] 「내성지」는 이전 시기 몽유록 작품들에서 보이는 창작 기법들을 단순히 계승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몽유록의 유형화된 서사 전개 방식에서 탈피하기도 하고,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 서사적 편폭을 대폭 확장, 장편화하고 있다.[36] 이런 조선후기 대표적인 몽유록 「내성지」의 저술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김수민의 『명은집』을 살펴보면 「내성지」의 집필 의도와 작가 본인이 「내성지」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다.

> 대개 내가 젊었을 때에 충의가 크게 떨어지게 되어 「내성지」를 지었는데 「황명사기」·「노릉지」·「동각기」·「육신전」을 엮어서 합하여 일부로 하였다. 본문에 의거하여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는 단서를 두었는데 근엄·정직하고 정성스럽고 강개하여 이를 읽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진실로 이른바 사람의 마음이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천지에 세워도 너그러워지지 않고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의심이 없으며 백세 후에 성인을 기다려서도 의혹이 없을 것이다.[37]

위의 글은 김수민이 24세때 지었던 「내성지」가 70세가 되었을 때 논란이 되자 쓴 글이다. 사건의 발단은 아마도 최항을 역신으로 기록한 대목이 같은 마을의 최씨 후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김수민은 그 대목을 삭제하였지만 최씨의 후손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문집을 불태워 버렸다. 이 후에는 성현을 모독하였다고 관가에 김수민을 고발하여 김수민은 7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김수민은 이 일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했으며 무오사화에 비길 정도로 자신의 정당함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내성지」

---

35)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05, 80면 참조.
36) 김정녀, 같은 책, 85면 참조.
37) “盖我少時, 爲忠義所激滅, 著奈城誌, 彙緝皇明史記及魯陵志·東閣記·六臣傳, 合爲一部, 依本文有褒貶之端, 而謹嚴正直惻怛慨惋, 讀此而不流涕者, 眞所謂無人心者也. 然則是書也, 建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無疑, 百世以俟聖人而不惑.”(김수민, 「答屯崔牌」, 『명은집』 권18, 신해진 역주, 앞의 책, 281면 재인용)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관해서도 '세상에 내놓아도 도리에 거스르지 않고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의심이 없으며 백세가 지난 후에 성인을 기다려서도 의혹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38]

이처럼 자부심을 가지게 된 「내성지」에는 단종과 사육신 뿐만 아니라 충신들이 많이 나온다. 김수민이 단종과 그의 충신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가 살았던 18세기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김수민이 태어나기 전인 1728년에 사육신과 단종에 연루된 충신들을 모셔놓은 동학사 숙모전(肅慕殿)이 불에 탔다. 동학사 숙모전은 김시습(金時習)이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여 배향을 한 곳이다. 사육신뿐만 아니라 단종에 관련된 충신들도 배향을 했다. 처음에 숙모전에 배향된 인물은 1457년 「병자원적」(丙子寃籍)에 나와 있다. 이개, 하위지, 박팽년, 성삼문, 유성원, 유응부와 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한 가족 등 107명이 배향되었었다. 누락된 인물에도 충절에 관련된 인물이 많아 1458년에 추가되었다. 단종, 이용, 이유, 이우직, 우량, 이령, 정종, 황보인과 같은 인물이 186명 추가되었다.[39] 이는 신숙주의 후손이 벌인 일이지만 배향에 빠진 충신들의 후손들도 배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사건이였다. 그래서 1731년에 육종영을 차례로 배식을 한다. 6종영은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과 의안대군의 손자 하령군을 말한다. 이들은 장릉 충신단에 모셔졌다. 하지만 사육신과 황보인, 김종서, 정분의 시호는 1758년에 이루어진다. 이는 「내성지」가 창작된 다음 해에 벌어진 일이다.[40]

또 18세기 초를 전후로 하여 전개된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에 대한 복권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송시열을 필두로 한 서인이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의명분을 밝히기 좋아하는 서인의 집안인 김수민은 단종과 그의 충신들의 대한 논란에 관심을 가져 「육신전」을 읽고 「내성지」를 지었을 확률이 높다.

그 추정된 근거는 「내성지」에서는 연회를 여는데 동문과 서문을 찾아오는 이들의 충의의 행적을 가리는 장면이 나온다.

황제가 곧 하명하였다. "너희는 본조와 동국의 신하들로 이제 대소국 군신

38) 신해진, 앞의 책. 281면 참조
39) 손종태, 「奈城誌의 창작배경과 역사담론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면 참조.
40) 김정녀, 「내성지 기억과 공간의 재구성」,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 2012. 15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이 모두 모였으니 진청 천고에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성대한 일인지라, 오늘 밤 큰 잔치를 베풀어 회동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좋을 것이로다." 모두 "예"하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또 명하였다. "오늘 모임에 대해 황실과 왕가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반드시 소문을 듣고 올 것이니, 누가 그들을 판별할 것인가?[41]

「내성지」에서 건문황제가 연회에 참석하는 자들을 판별하라고 명하는 장면이다. 연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충의의 행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물들이 참석할 때는 그들의 충의 행적을 확인한 후 연회에 참석시킨다. 참여한 인원의 수는 300명 정도 된다. 이처럼 그는 춘추대의에 의한 의리관념에 따라 충신과 간신들에 대한 시시비비의 단서를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드러내고자 했다.

이처럼 불의를 보고는 의분을 느끼고 기개와 절조가 있는 김수민이 사육신의 충의에 감동받아 「내성지」를 저술했다.

41) "皇帝乃下命曰: 咨汝本朝羣臣及東土陪臣, 今大小國君臣咸會, 眞千古一盛事, 可於今夜設大宴以爲會同之樂乎! 僉曰: 唯. 皇帝又命曰: 今日之會, 大小朝臣民, 必有聞此而至, 疇若釆?"(『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168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의 등장인물을 통해 본 작가의식 비교

1. 등장인물 비교

1) 단종

가) 「원생몽유록」의 단종

단종은 세조의 왕위찬탈 사건의 피해자이다. 「원생몽유록」과 「내성지」 두 작품 모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세조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원생몽유록」의 단종은 시연(詩宴)이 시작되자 서글픈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다.

강물은 오열하며
끊없이 흘러 흘러
내 마음도 길이길이
강물 따라 흐르구나.
살아서는 임금이요
죽어서는 외로운 혼
왕망은 거짓 임금이요
의제라고 받든 건 거짓이었네
고국의 백성들은
항우에게 다 가고
예닐곱 신하만 곁에 남아
내 넋을 맡겼네.
오늘 밤이 어떤 밤이기에
강가 정자에 모였는지
물빛과 달빛에
내 마음 시름겨워
슬픈 노래 부르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천지가 아득하네[42]

「원생몽유록」 단종이 읊은 시이다. 그의 시상(詩想)에서 임금의 강개한 기운을 찾을 수 없다. 그저 처참하고 구슬플 따름이다. “강물은 오열하며, 끊없이 흘러 흘러, 내 마음도 길이길이, 강물 따라 흐르구나”. 첫 구절의 오열하는 강물이 자신의 마음에 흘러내린 다는 표현을 하여 임금의 심회가 처량하고 구슬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살아서는 임금이요, 죽어서는 외로운 혼이요” 살아서는 임금의 칭호를 받았지만 죽어서는 노산군이라는 왕자의 칭호로 불리는 것에 대한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왕의 초라한 처지와 처량하고 수심 가득한 슬픔은 외계의 경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흰 달빛과 달과 넘실대는 강물이 슬픔를 돋우는 장치가 된다. 왕은 노래의 전반부에서 자신의 처지를 중국의 의제에 비기고, 후반부에서 외물에 투사함으로써 실재하는 비회를 극대화하여 드러낸다. 이것은 왕의 노래가 자신의 처지를 분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끝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처량하게 비유를 했다. 이런 정조는 애초, 왕이 시를 짓게 된 까닭인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해 노래하는 것”(悲不自勝乃歌曰)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43] 요컨대 왕의 모습을 한 인물의 노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현재적 상황을 돌아보고 슬픔과 처참한 기운, 감상과 애한의 정조에 휩싸여 노래를 불렀다. 「원생몽유록」 속의 신하들의 정조 또한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나) 「내성지」의 단종

「내성지」 단종은 건문황제가 먼저 자신의 처지에 관한 시를 읊고 황제가 화답하길 원하자 단종 역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시를 읊었다.

한스러운 새 한 마리 궁궐에서 나와
외로운 그림자만이 푸른 산을 헤매누나.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들 수가 없고,

---

42) “江波咽咽兮, 流無窮. 我懷長長兮, 與之同. 生爲千乘兮, 死作孤魂. 新是僞王兮. 帝乃陽尊. 故國人民兮, 盡輸楚籍. 六七臣同兮, 魂庶有托. 今夕何夕兮, 共上江樓. 波光月色兮, 使我心愁. 悲歌一曲兮, 天地悠悠.”(『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170면)

43) 전성운, 「<원생몽유록>에 구현된 정조(情調)와 문예적 의미」, 『우리어문학회』 28, 2007, 259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해마다 한을 그치려 해도 한이 그치지 않는다오
울음소리 새벽산에 끊어지면 그믐달이 비추고
봄 골짝엔 토한 피가 흘러 떨어지는 꽃잎도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린지 아직도 슬픈 하소연 못 듣는데
어쩌다 서러운 이 몸, 귀만 홀로 밝은가[44]
또 읊었다.
달빛 밝은 밤 자규새 우는데
시름 품고 누각에 기대었네
네 슬픔 울음 내 듣기가 괴롭나니
네 소리 없으면 내 시름도 없으리라
세상의 괴로운 자에게 말 전하노니
삼가 춘삼월 자규루(子規樓)에는 오르지 마소[45]

「내성지」의 단종 역시 자신의 한을 담고 있는 시를 노래를 했다. “한스러운 새 한 마리 궁궐에서 나와, 외로운 그림자만이 푸른 산을 헤매누나” 이 부분은 단종이 폐위 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갔을 때 자신의 상황을 노래한 부분이다. “봄 골짝에 토한 피가 흘러 떨어지는 꽃잎도 붉구나” 이 부분은 자신의 복위운동으로 죽은 사육신과 다른 충신들의 죽음으로 인해 피를 흘렸다는 것을 비유하였다. “달빛 밝은 밤 자규새 우는데” 구절에서는 자신의 유배지 였던 영월의 자규루에 자신이 읊었던 자규시를 뜻한다. 그리고 “삼가 춘삼월 자규루에는 오르지 마소”라는 구절에는 단종이 자신의 과거를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종이란 인물은 숙부인 수양대군의 의해 폐위되고 죽임을 당한 인물로 「원생몽유록」과 「내성지」 안의 단종의 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처연하고 구슬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원생몽유록」에서는 단종이 이미 참석을 하고 있는 연회에 몽유자가 초대 된다. 이처럼 「원생몽유록」의 단종은 연회 주최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내성지」에서 연회 개최를 발언한 이는 건문황제이다. 이와 같이 「내성지」는 건문황제를 등장시킴으로써 「원생몽유록」과 연회를 다르게 풀어나가고 있다. 건문황제는 명나라 2대 황제로서 연왕이 정난의 변을

44) “一自寃禽出帝宮, 孤身隻影碧山中. 暇眠夜夜眠無眠, 窮恨年年恨不窮. 聲斷曉岑殘月白, 血流春谷落花紅. 天聲尙末聞哀訴, 胡乃愁人耳獨聰.”(『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00면)

45) “月白夜蜀魄啾, 含愁情倚樓頭, 爾啼悲我聞苦, 無爾聲無我愁, 寄語世上苦勞人, 愼莫登春三月子規樓”(『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01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으켜 폐위가 된 왕이다. 명나라의 황제인 건문황제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작가 김수민의 존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명나라 황제 중 건문황제가 등장한 이유는 단종과 건문황제가 자신의 핏줄에게 똑같이 왕위를 빼앗겨 폐위가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성지」에서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진 두 임금이 가장 먼저 입장하여 연회를 주도하고 먼저 시를 선창했다. 그리고 양국의 신하들은 이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연회가 진행되었다. 건문황제와 단종이 잔치의 주재자 역할인 것이다. 그리고 단종이 건문황제에게 자신을 신(臣)이라 칭하면서 김수민의 사상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사육신과 남효온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에는 사육신과 「육신전」을 지은 남효온이 등장한다. 「내성지」에는 「원생몽유록」과 다르게 사육신과 남효온 외에 다른 충신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의 비교인만큼 두 책에 나오는 공통된 등장인물을 비교하고자 한다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에는 성격이 비슷하게 그려지는 인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다. 이를 소설 속 그들이 읊은 시로 두 작품에 나오는 사육신과 남효온의 차이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박팽년

박팽년은 집현전 학자로 세조 때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하다가 발각 되어 죽임을 당했다. 사육신의 한사람으로써 수양대군이 그의 능력을 아껴 처음부터 운검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끝내 죽음을 택한다. 먼저 「원생몽유록」에서 첫째 자리 앉은 이가 시를 읊는 것을 시작하는데 첫째 자리 앉은 이가 박팽년이다.

> 어린 임금 고이 받들 힘이 그리 없었다니
> 나라를 빼앗기어 임을 욕보이고 제 목숨마저 잃었구나.
> 올려다보고 내려다 볼 때 천지가 부끄러워
> 그 해에 어찌 일찍 도모하질 못했던고[46]

「원생몽유록」에서 박팽년이 읊은 시이다. 슬픔과 후회의 정서를 배경으로 읊었다. “나라를 빼앗기어 임을 욕보이고” 구절에서 왕위를 빼앗아 가고 왕께 욕을 보이고 자신은 목숨마저 잃은 현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당시에 임금의 복위를 일찍 도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시를 나타내고 있다.

시인의 관점은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있다. 자신의 부끄럽고 비참한 현재의 처지와 지나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로 일관되어 있다. 다만 왕의 노래가 현 상황에 처량함을 말하는 것에 중점을 맞췄다면, 박팽년의 시는 현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과 과거에 대한 회한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

---

46) “深恨才非可托孤, 國移君辱更捐軀. 如今俯仰慙天地, 悔不當年早自圖.”(『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170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리고 현 상황이 안좋은 만큼 자신의 슬픔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47] 요컨대 박팽년은 인물을 과거의 일에 얽매여 후회하고 현재에는 자신을 자책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내성지」에서 박팽년이 읊은 시이다.

문득 당시의 계책 경솔했음을 후회하나
군주를 잃음에 신하 따라 죽는데 무슨 마음이랴
슬프도다, 경회루 연못 아래로
다만 모래 품고 일찍 뛰어들었어야 했거늘[48]

「내성지」에서는 건문황제의 시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시를 읊으면서 연회가 마무리 된다. “문득 당시의 계책을 경솔했음을 후회하나”와 “다만 모래 품고 일직 뛰어들었어야 했거늘” 구절을 보면 「내성지」의 박팽년은 「원생몽유록」의 박팽년과 마찬가지로 단종복위운동을 일찍 도모하지 못함에 후회를 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원생몽유록」의 박팽년은 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 후회를 정서가 바탕이라면 「내성지」의 박팽년은 “군주를 잃음에 신하 따라 죽는데 무슨 마음이랴”라는 구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당당함이 나타나 있다.

나) 성삼문

성삼문은 세종이 정음청(正音廳)을 설치하고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할 때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세조가 왕좌에 앉자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했다. 김질의 고발로 발칵 되어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 「원생몽유록」에서 둘째 자리 앉은 이로 두 번째로 시를 읊조렸다.

선왕의 유명 받고 큰 은총 입었으니
위기에 처해 어찌 내 목숨 아끼리
가련해라 몸은 죽었어도 이름은 빛나니
부자가 함께 의리를 위해 목숨 바쳤네[49]

---

47) 전성운, 「<원생몽유록>에 구현된 정조(情調)와 문예적 의미」, 『우리어문학회』 28, 2007, 260면 참조

48) “却悔當年計不深, 君亡臣死竟何心. 可憐景會樓池下, 只合懷沙早自沉.”(『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67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원생몽유록」에서 성삼문이 읊은 시이다. 그는 먼저 자신이 선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했던 단종 복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현재 이름은 떳떳하게 세상에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패배와는 상관없이 선왕에 대한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자신의 이름이 알려졌다고 자부한 것이다.[50] 그리고 "부자가 함께 의리를 위해 목숨 바쳤네"에서 부자는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자신을 말한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집안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성상문의 시에서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 보다는 자신의 충심에 자부심이 더 큰 정서이다. 과거의 일은 '가련한 일'을 '빛나는 이름'으로 언급을 한다. 이처럼 과거의 일에 얽매여 있는 박팽년과는 사뭇 다른 정조를 표출한 것처럼 보인다. 성상문의 시선은 과거보다 현재의 자신에 맞춰져있다. 심리적으로 과거 자신의 행위를 가련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과거의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성상문은 「내성지」에서 다른 사육신 보다 많은 역할이 주어진다. 연회가 시작되자 동문에는 명나라 건문황제의 충신들이 서문에는 단종의 충신들이 오기로 한다. 동문에는 명나라의 방효유라는 충신이 서문에는 성삼문이 문지기로 명을 받는다. 여기서 「내성지」 안에서의 성삼문의 역할이 판결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질과 정창손은 처음에는 함께 충절을 지켰으나 나중에 변질을 하게되는 인물이다. 이 인물들은 처음에는 김종서와 뜻을 같이 했으니 충신들의 모임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왔지만 성삼문에 의해 쫓겨난다. 다음 시는 성삼문이 연회가 끝에 다다르자 읊은 시이다.

칼 어루만지며 슬픈 노래에 흠뻑 취한 웅걸이여
천년 맺힌 원한은 언제쯤 끝내려나
꿈에서도 흥망에 놀라 창자가 찢어지려 하고
분통이 충사에 터지니 머리털이 빠지려 하네.
산은 우뚝하여 마치 백이가 서있는 것 같고
바닷물은 맑아 노중련의 풍도에 못지않네.
노래 끝나고 연주 끝나니 사람들 모두 앉았는데

49) "受命先朝荷寵隆, 臨危肯惜殞微躬. 可憐死去名猶烈, 取義成仁父子同."(『한국한문소설교합구해』, 박희병, 170~171면)
50) 전성운, 「<원생몽유록>에 구현된 정조(情調)와 문예적 의미」, 『우리어문학회』 28, 2007, 261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높은 누각에 홀로 올라 말이 없구나[51]

「내성지」에서 성상문의 시이다. 성상문은 자신을 웅걸이라 표현하고 단종의 폐위사건에 대한 고통을 자신의 창자가 찢기고 머리털이 빠지려고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충절을 충신인 백이와 멸망위기의 조나라를 구한 노중련(魯仲連)에 비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단종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한탄함을 홀로 말이 없다고 표현을 했다.

성삼문은 「원생몽유록」에서는 사육신 중 한사람으로 그려졌지만 「내성지」에서는 판결자로 선정 되면서 다른 사육신들 보다 연회 안에서 역할이 두드러지게 그려지고 있다.

다) 하위지

하위지는 사육신 중 한 명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세조 때 예조참판(禮曹參判)을 하였는데 이는 단종을 위한 것이였고 세조의 왕권강화에 맞서기도 하였다. 그리고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하여 참형에 당하였다. 「원생몽유록」에서는 셋째 자리에 앉은 이가 하위지이며 시를 읊기 시작했다.

굳센 절개를 벼슬로 더럽히랴
가슴속엔 여전히 고사리 캐는 마음 품었네
내 한 몸 죽는 것쯤 애석할 것 없거늘
침에 계신 의제 생각에 통곡할 뿐이네[52]

“굳센 절개를 벼슬로 더럽히랴” 이 구절에 나온 벼슬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하위지에게 내린 예조참판이라는 직책이다. 하위지가 예조참판의 일을 한 이유는 단종을 위한 것이 였다. 그러니 이 구절의 의미는 예조참판을 했던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충절에 대해 “고사리 캐는 마음” 구절로 백이·숙제 충절에 빗대어 말하고 있고 목숨을 바치는 것 또한 아깝지 않다고 읊고 있다. “침에 계신 의제”는 단종을 빗대어 표현

51) “撫釼悲歌半乭雄, 千年寃恨幾時終. 夢驚興廢肝將裂, 憤切忠邪髮欲童. 山出盡如淸聖立, 海澄不讓魯連風. 曲終樂亂人皆坐, 獨上危樓不語中.”(『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66면)

52) “壯節寧爲爵祿淫, 含章猶抱採薇心. 殘軀一死何須惜, 痛哭當年帝在郴.”(『한국한문소설교합구해』, 박희병, 171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 하위지를 박팽년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과 자책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내성지」에서 하위지는 「원생몽유록」과 다르게 자신의 죽음 보다는 나라의 위상에 초점을 맞춰 시를 읊었다.

팔월의 강변 누각 천기가 싸늘한데
인간세상의 흥망을 길이 탄식한다네
옛 조정의 위의(威儀)는 오직 여기에 있나니
신하들은 모두 한나라 의관을 했도다.[53]

"옛 조정의 위의는 오직 여기에 있나니"라는 구절을 통해 현 조정 보다 자신이 모시는 단종과 명나라 황제 건문황제가 있는 이 연회가 무게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즉 명나라가 멸망한 현 조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 이개

이개는 사육신 중 한 사람으로 성상문과 함께 훈민정음을 반포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개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충절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런 이개의 성격이 「원생몽유록」속 시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개는 「원생몽유록」에서 네 번째 자리 앉은 이로 시를 읊조렸다.

천신은 본래 담대하거늘
구차히 살겠다고 패륜을 방관하랴
죽음 앞두고 지은 시 있으니
두 마음 품은 자들 부끄러우리[54]

「원생몽유록」에서 이개가 읊은 시이다. 이개는 담대한 성격으로 세조의 왕위찬탈을 패륜으로 생각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지은 시로 자신의 충절을 표현하였다. 이개가 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우정(禹鼎)처럼 중요하게 여길 때에는 사는 것도 또한 대단하지

53) "八月江樓天氣寒, 興亡人世一長嘆. 古國威儀惟在此, 君臣皆着漢衣冠."(『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67면)
54) "微臣自有膽輪囷, 那忍偸生見喪倫. 將死一詩言也善, 可能慙愧二心人."(『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171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만, 홍모(鴻毛)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곳에는 죽는 것도 오히려 영광이네. 해 뜨기 전까지 잠자지 못하다가 중문 밖을 나서니, 현릉(顯陵)의 송백이 꿈속에 푸르고나!"[55] 이 시는 자신의 삶을 위해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절의가 있음을 밝히는 시이다 작가가 이 시구를 "言也善"이라고 평가한 것은 작가 눈에 비친 이개는 충절의 인물이었음을 형상한 것이다.[56] 또한 이개는 위의 세 충신들과 달리 이개는 "두 마음 품은 자들 부끄러우리"라는 구절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를 비판하고 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세조의 회유에 넘어가 배신을 하는 인물들로 짐작된다. 이개는 위의 충신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충절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자들 비판하고 있다.

이개는 「내성지」에서 「원생몽유록」에서 언급한 「임사시(臨死詩)」를 읊어 「원생몽유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절을 택한 것이 영예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개는 연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다른 사육신들처럼 자신의 충절과 원통함을 시로 이야기 하고 있다.

거듭 고금을 느끼나니,
어느 곳에 단심을 표하리오
고국의 산천은 저물고
강가 누대의 술자리는 깊어가네
원한 많으니 북과 피리 오열하고
근심은 더욱 길어지고 새벽빛 밝아오네
술 떨어지고 혼백 떠나려 하니
잔잔한 호수에 달이 반쯤 잠겼도다.[57]

「내성지」에서 이개가 읊은 시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충절을 표할 곳이 없어 슬프다고 하였다. 또한 원한이 많아 오열을 하고 근심이 계속 깊어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그리고 곧 연회가 끝나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이개의 시를 통해서 연회가 끝나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55) "禹鼎重時生亦大, 鴻毛輕處死猶榮. 明發未寢出門去, 顯陵松柏夢中靑."(이개, 「臨死絶筆」,정용수, 「원생몽유록의 문학적이해와 역사적 담론」, 『한문교육연구』 21, 2003, 453면 재인용)

56) 정용수, 앞의 논문, 453면 참조.

57) "重來感古今, 何處表丹心. 故國山川暮, 江樓酒壘深, 怨多鼓吹咽, 愁轉曉光侵, 酒盡魂欲去, 平湖月半沉."(『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70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 유성원

유성원은 단종복위를 도모에 참여한 인물들이 모진 고문을 당할 때 유일하게 자결을 한 인물이다. 「원생몽유록」에서 유성원은 다섯째 자리에 앉은 이로 시를 읊었다.

서글퍼라 그날의 마음 어떠했던가
죽음이 있을 뿐 그 뒤의 명예야 논할 것 없네.
씻지 못할 천추의 한은
집현전에서 수양대군 기리는 글 지어 준 일일세.[58]

유성원이 읊은 시이다. 유성원은 성삼문과 같이 자신의 죽음 뒤에는 명예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현전에서 수양대군 기리는 글 지어 준 일이세" 구절에서 다른 이들의 시와 다르게 수양대군을 언급하였다. 유성원은 집현전 교리였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등 대신을 살해하고 스스로 정권을 잡은 뒤 백관들을 시켜 자기의 공을 옛날 주나라 주공(周公)에 비견해 임금에게 포상하기를 바라여 집현전에 명해 교서를 짓게 하였다. 그러자 집현전 학자들이 모두 달아났다. 집현전 교리였던 유성원만이 혼자 남아 있다가 협박을 당해 기초를 썼었다. 그래서 이 언급은 수양대군을 비판하기 보다는 자신이 했던 일을 자책하면서 수양대군을 언급하였다. 이는 당대 분위기상 수양대군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성지」에서 유성원은 다른 사육신에 비해 언급이 많이 되지는 않으나 연회 마지막에 시를 읊으면서 자신의 심회를 나타내었다.

가련하구나 뜻이 있는 남아(男兒)가
고국산천을 다시 찾았으나 구름만 떠갈 뿐인 것을.
임금의 은혜 미처 갚지도 못하고 이 몸 먼저 죽었으니
그때 집현전에 모였던 일 부끄럽기만 하네.[59]

---

58) "哀哀當日意何如, 死耳寧論身後譽. 最恨千秋難雪恥, 集賢會草賞功書."(『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171면)

59) "有志男兒此可憐, 重遊故國但雲烟. 主恩未報身先死, 慚愧當年會集賢."(『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67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국산천을 다시 찾았으나 구름만 떠갈 뿐인 것을" 구절에서는 다시 내성지에 왔으나 할 일이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임금의 은혜 미처 갚지도 못하고 이 몸 먼저 죽었으니"라는 말은 문종 임금께 받은 은혜를 단종에게 갚아야 하는데 단종보다 먼저 죽은 자신의 상황을 말한 것이다. "그때 집현전에 모였던 일 부끄럽기만 하네"라는 구절은 「원생몽유록」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수양대군이 교서를 쓰게 한 일을 말한다. 유성원은 「내성지」에서도 「원생몽유록」에서도 집현전에서 교서를 쓴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인물로 그려졌다.

바) 유응부

유응부는 사육신 중 유일한 무신이다. 유응부는 「원생몽유록」의 연회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나중에 나타나 칼을 뽑고 일어나 춤을 추며 비분강개한 어조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수수 부는 바람에
나뭇잎 지고 물결 차가운데
칼 어루만지며 길게 휘파람 부니
북두성이 기울었네.
살아서는 충과 효를 다했고
죽어서는 굳센 혼백 되었네.
내 마음 무엇을 닮았나
저 둥근 달을 닮았네.
아아! 애당초 함께 도모하지 말았어야지
썩은 선비 누구를 책하리.[60]

「원생몽유록」에서 유응부가 읊은 시이다. 전반부에서는 소슬한 가을 정취와 강개한 지사의 심사를 대비적으로 묘사하며 과거와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시인의 현재의 심회를 노래하였다. 현재적 상황을 "내 마음 무엇을 닮았나 저 둥근달"로 표현하였다. 비회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강개한 장부의 기상이 둥근달로 묘사되고 있다.[61] 9, 10구절에는 과거의

60) "風蕭蕭兮, 木落波寒. 撫劒長嘯兮, 星斗襟干. 生全忠孝, 死作毅魄. 襟懷何似, 一輪明月. 嗟不可與慮始兮, 腐儒誰責."(『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173면)
61) 전성운, 「원생몽유록>에 구현된 정조(情調)와 문예적 의미」, 우리어문학회 28, 200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에 대한 현재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유응부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썩은 선비'라는 말을 했는데 마지막 구절과 함께 살펴보면 무신인 유응부는 다른 문신들과 자신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단종의 복위를 도모할 때 유응부는 세조의 연회에서 별운검(別雲劍)을 맡은 적이 있었다. 그때 거사를 실행할 계획이었지만 세조가 연회 당일 별운검을 폐지하는 일이 일어났다. 유응부는 그대로 거사를 실행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다른 충신들의 만류로 거사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문신인 다른 충신들과 함께 도모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다.

「내성지」의 유응부는 연회 문지기를 정할 때 성삼문이 되는 것을 반대 한다. 선비 주제에 무슨 문지기를 하냐는 식의 말이 나와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응부가 읊은 시에서도 나타난다.

바람이 쓸쓸하게 불고
금장강 물 차가운데
충신이 한 번 죽었어도
나라가 안녕치 않았다오.
썩은 선비와는 도모하지 못할 것인지라
안타까움 오래니 언제나 그치랴?
칼을 어루만지며 노래하나니
피맺힌 원한을 천고에 누가 씻어 주리오?[62]

「내성지」에서 유응부가 읊은 시이다. "썩은 선비와는 도모하지 못할 것인지라" 라는 구절에서 '썩은 선비'는 사육신 중 유응부를 제외한 다른 신하를 말하는 것이다. 무신인 자신이 문신인 자들과 도모한 것을 오랫동안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신의 한을 말하고 있다. 이는 「원생몽유록」 안에서 유응부의 성격과 일치한다. 무신인 유응부를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에서 성격이 일치한다는 것은 무신에 대한 인식이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육신은 「원생몽유록」이나 「내성지」에서 자신들의 원한과 임금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원생몽유록」의 사육신은 작가가 사육신의 충절을 알리는 장치로만 쓰여졌다면 「내성지」에서는 명나라에 대한 존숭의 장치로도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임제는 순수하게 사육신

262면 참조

62) "風蕭蕭兮, 錦水寒. 忠臣一去兮, 國未安. 腐儒不足與謀兮, 咄咄長何極. 撫釼作歌兮, 血寃千古問誰雪."(『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69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충절을 존경한다면 김수민은 사육신의 충절을 자신의 존명의식에 비견하고 있다.

사) 남효온

남효온은 생육신 중 한 명으로 「육신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원생몽유록」을 저술할 때 「육신전」의 영향을 받은 만큼 남효온 역시 중요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원생몽유록」에서는 복건자라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복건자는 몽유자인 원자허를 연회에 초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연회 시작 전 복건자와 단종의 대화를 보면 「원생몽유록」의 연회를 관통하는 역사의식을 알 수 있다.

> 모두 자리에 앉자 고금의 역사에 대한 토론이 도도하게 펼쳐졌다. 복건쓴 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임금과 순임금과 탕왕과 무왕은 만고의 죄인입니다. 후세에 음흉한 농간을 부려 왕위를 찬탈한 자들이 선양 받았다며 요순을 빙자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공격한 자들이 탕왕과 무왕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 끝내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아아 이 네 임금이 도적의 효시입니다.” 말을 미처 끝내기 전에 임금이 정색하고 말했다. “어허 이 무슨 말이오! 네 임금의 성스러운 덕을 지니고 네 임금의 시대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네 임금의 성스러운 덕도 없고 네 임금의 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오 저 네 분 임금께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그 분들을 빙자하고 명운으로 삼은 자들이 도적을 뿐이오”[63]

복건자는 요순탕무(堯舜湯武)를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입하여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단종은 요순탕무의 행위를 개인적인 덕과 시세의 탓으로 돌리고 복건자가 사과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복건자는 요순탕무만을 죄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후세에 이를 빙자하고 일컫는 자들을 모두 죄인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통치자의 평가에서 정의나 명분도 중요하지만 덕망이나 시기도 중시되어야 한다

63) “坐已定, 相與論古今興亡, 亹亹不厭, 幅巾者噓噫而嘆曰: 堯舜湯武, 萬古之罪人也. 後世之狐媚取禪者, 藉焉, 以臣伐君者, 名焉, 千載滔滔, 卒莫之救, 咄咄四君, 爲賊嚆矢矣. 言未旣, 王乃正色曰: 惡! 是何言也? 有四君之聖, 而處四君之時, 則可, 無四君之聖, 而非四君之時, 則不可. 彼四君者, 豈有罪哉? 顧藉之者名之者 賊也.”(『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169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단종의 주장과 대립을 이루고 있다. 복건자가 가치판단에 치중했다면 왕은 인물평가를 중시했다. 이 점이 「원생몽유록」 속 연회에서 역사인물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64] 이처럼 「원생몽유록」의 남효온은 「원생몽유록」의 역사의식을 관통하는 의견을 낸 중요한 인물이고 작가 임제에게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인 점을 알 수 있다.

산하를 둘러보니 예전과 다른데
정자에 오르니 초나라 죄수의 슬픔 일어나네.
나라 잃고 놀란 마음 애간장이 찢어지고
간악한 자들에 격분하여 눈물이 흐르네.
율리 맑은 바람 속에 도연명은 늙어 갔고
수양산 찬 달빛 아래 백이는 굶주렸네.
한편의 야사를 후세에 전하노니
천년토록 선과 악의 스승 노릇 하리라.[65]

이는 「원생몽유록」 복건자가 읊은 시이다. 복건자는 남효온이다. 이 시를 살펴보면 1, 2구에 나오는 '초나라 죄수'라는 구절은 타향에서 방황하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즉 한이 많아 혼이 방황하는 사육신의 초라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3, 4구에서는 사육신들의 충절에 감정에 복받치는 남효온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남효온이 절의를 지킨 신하와 그렇지 못한 신하들을 보며 격분하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생육신으로서의 모습을 그려냈다. 5, 6구에서는 "율리 맑은 바람 속에 도연명은 늙어 갔고"와 "수양산 찬 달빛 아래에서 충신이 백이가 굶주렸네"라는 표현은 대비되는 표현으로 수양대군이 다스리는 나라는 충신들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표현 하고 있다. 7, 8구에서는 '한편의 야사'라는 말로 자신이 저술한 책인 「육신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육신에 관련된 「육신전」의 저술이야말로 과거 절의를 행적을 밝혀주어 선악의 스승이 되었다는 뜻으로 쓰여졌다. 이에서 임제는 사육신들이 실천한 절의를 후대인 나름대로 계승할 수 있게 해준 남효온의 역할을 평가한 것으로 짐작된다.

---

64) 정용수, 「원생몽유록의 문학적이해와 역사적 담론」, 『한문교육연구』 21, 2003, 449면 참조.

65) "擧目山河異昔時, 新亭共作楚囚悲. 心驚興廢肝腸裂, 憤切忠邪涕淚垂. 栗里淸風元亮老, 首陽寒月白夷飢. 一編野史堪傳後, 千載應爲善惡師."(『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172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내성지」에서 남효온은 수 많은 충신 중 한사람으로써 다른 충신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충절을 시로 읊조렸다.

사나운 바람 비로서 걷히니
모든 구멍이 막힌 듯하다
서리와 눈이 희고 흰데
소나무만 홀로 푸르러라
신하의 머리는
임금을 근심타가 희어졌나니
머리는 벨 수 있어도
절개는 꺾을 수 없었노라
남의 곡식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먹지 않았으니
고죽(孤竹)엔 맑은 바람 불고
시상(柴桑)엔 밝은 달 비치어라
땅 속에 귀신 있으니
억울한 피가 한 움큼 가득하도다[66]

이는 「내성지」 남효온이 읊은 시이다. “머리는 벨 수 있어도 절개는 꺾을 수 없었노라”와 “남의 곡식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먹지 않았으니” 이 구절에서 사육신의 충절과 죽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억울한 피가 한 움큼 가득하도다’ 이 구절에서는 사육신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내성지」의 집필의도에서 「육신전」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육신전」의 저자인 남효온을 사육신의 충절을 알리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역할로 그려지고고 있다.

남효온을 「원생몽유록」에서는 복건자라는 별칭을 붙여 몽유자를 데려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로 그려졌다면 「내성지」에서는 수많은 충신 중 한 명으로 그려졌다.

66) “厲風初濟, 衆竅爲塞. 霜雪皎皎, 松獨也碧. 有臣之首, 愛君而白. 有頭可截, 節不可屈. 他人之粟, 寧死不食. 孤竹淸風, 柴桑明月. 士中有鬼, 寃血日掬.”(『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18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작가의식 비교

1) 「원생몽유록」에 나타난 작가의식

「원생몽유록」은 제목만 봐도 주인공을 알 수 있다. 작가 임제의 분신인 몽유자 원자허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몽유자를 통해 「원생몽유록」의 작가의 의식을 알 수 있다.

> 세상에 원자허라는 이가 있는데, 강개한 선비다. 기개가 높고 도량이 매우 넓어 자잘한 일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원자허에게는 羅隱과 같은 한이 있었고, 原憲처럼 견디기 어려운 가난이 있었다. 그리하여 아침 일찍 나가서 농사를 짓고, 밤늦게 돌아와 옛사람의 책을 읽었다. 벽을 뚫어 이웃집의 불빛으로 책을 읽고 반딧불이를 주머니에 넣어 그 불빛으로 책을 읽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를 계속했다. 역사서를 읽다가는 역대 왕조가 멸망의 위기에 놓여 국운이 떠나고 형세가 궁하게 되는 대목에 이를 때마다 책을 덮고 눈물을 흘렸는데 마치 자신이 그 시대에 살아 나라가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보며 제 힘으로 지탱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만 같았다. 67)

이 대목을 살펴보면 몽유자의 면모와 처지를 서술하고 있다. 몽유자 원자허는 강개한 선비로서 기개가 크며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인물이다. 원자허는 여러번 과거에 실패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였다. 그리고 아침에는 농사를 짓고 밤늦게 돌아와 이웃집 불빛으로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비애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서에 관심이 많아 역대 왕조가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모ㅅ다. 몽유자가 작가 임제 자신을 가탁한 허구적 인물임은 다음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 나 임제는 성질이 거칠고 뻣뻣한 사람이라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고 자못 호협하게 놀기를 일삼아 기방이며, 술집으로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나이 이십이 가까워 비로소 배움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힘써

---

67) “世有元子虛者, 慷慨之士也.氣宇磊落, 不容於世, 屢抱羅隱之恨, 難堪原憲之貧, 朝出而耕,夜歸讀古人書, 穿壁襄螢, 無所不爲. 嘗閱史, 至歷代危亡運移勢去處, 則未嘗不掩卷流涕, 若身處其時, 汲汲焉見其垂亡, 而力不能扶者也.”(『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167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배운 것이라곤 글귀를 교묘하게 다듬고 정문을 지어 사람의 눈을 현혹하며 당세에 이름을 얻고자 하는데 지나지 못했다. 그 후 여러 번 과장에서 낙방하고 세속에 맞는 취향이 적어 홀연 멀리 노닐 생각이 일어났다.[68]

이 기록을 보면 임제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고 20세 때 비로소 학문을 시작했으나 수차례에 걸쳐 과거에 낙방한 이후 전국 각지의 명승과 기방을 떠돌며 많은 풍류적인 행적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자유롭고 호방했던 임제가 몽유자를 창안해낼 때 그의 내면적 감정을 비분감보다는 비애감으로 그려냈다. 이런 비애감을 임제는 여러 차례 낙방으로 겨우 벼슬을 했지만 자신이 생각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 벽을 느끼게 되면서 방황을 하였다. 이 때 임제가 비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몽유자인 원자허 감정을 비애감으로 그려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69] 꿈에서 원자허는 현실에서의 고뇌와 근심을 떨치지 못하는 인물로 형상화 되고 있다. 다음 시를 통해 원자허의 꿈 의도를 알 수 있다.

한 서린 긴 강물은 목매어 흐르지 못하고
갈대꽃과 단풍잎엔 우수수 찬바람 부네.
이곳은 분명 장사 강가 같은데
달 밝은 이 밤 영령들은 어디서 노니나[70]

“한서린 강물은 목매어 흐르지 못하고” 구절은 단종의 시신이 강가에 버려진 비극을 이야기 하고 “이곳은 장사 강가 같은데” 구절은 장사는 항우가 초나라 의제를 이곳으로 쫓아낸 뒤 살해한 장소이다. 이 시를 다 읊은 후 단종을 만났다. 그래서 원자허가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러 꿈을 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자허의 비애감을 나타낸 시가 연회가 끝나갈 무렵 읊은 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

68) “某, 麤豪人耳, 早歲失學, 頗事俠遊, 娼樓酒肆, 浪迹將遍. 年垂二十, 始志于學, 而其所學 亦不過雕章繪句, 務爲程文, 眩有司之目, 而圖當世之名矣. 其後屢屈科場, 無適俗之調, 忽起遠遊之志.”(임제, 「의마부」, 『백호집』권4,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신해진, 110면 재인용)

69) 신해진, 같은 책, 110면 참조.

70) “恨入長江咽不流, 荻花楓葉冷颼颼. 分明認是長沙岸, 月白英靈何處遊?”(『한국한문소설교합구해』, 박희병, 168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난 일 누구에게 물을까
황량한 산에 저 무덤 하나뿐.
정위는 깊은 한 품고 죽었고
두견새는 넋 끊어져 시름겹네.
언제 고국산천 돌아갈까
오늘은 강가 정자에 노니네
몇 곡의 노래 슬프기만 한데
지는 달 아래 갈대꽃 피었네.[71]

이 시는 원자허가 연회가 끝나갈 때 읊은 시이다. 원자허의 시는 단종의 비극에 대한 감정을 후대인이 바라본 시점에서 읊었다. 원자허는 단종의 비극을 이미 '지나간 하나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물을 수 있는 곳은 '황량한 산에 저 무덤 하나뿐' 구절를 통해 현 상황에 문헌에 기록만 되어있을 뿐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정위는 단종을 뜻하고 두견새는 사육신을 뜻한다. 그래서 두 새가 평소에는 언제 명예가 복구 될까 걱정만 하는데 오늘은 연회에 모여 놀고 있다고 표현을 하였다. "몇 곡의 노래 슬프기만 한데" 구절을 통해 연회를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허가 이 연회를 통해 단종과 사육신의 복위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는 원자허를 창안해낸 임제가 단종과 사육신의 복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원생몽유록」의 몽유자인 원자허를 살펴보면 원자허는 책 읽기는 좋아하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역사서에 관심이 많아 역사서를 읽을 때 왕조의 멸망부분이 나올 때마다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임제의 생애와 많이 닮아있다. 이처럼 임제는 자신의 분신인 원자허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원생몽유록」에 나타내고 있다.

원자허가 꿈에 사육신과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을 만나 충절의 시를 통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와 그 신하들을 비판하고 세조의 비도덕적 행동에 죽음으로 맞선 사육신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동시에 당쟁으로 인한 당시 사회의 불합리성을 꿈의 형식을 빌어 고발하고 있다. 비명에 죽은 단종과 사육신에 대한 애도, 그러한 생육신 남효온에 대한 동정을 작가 분신인 원자허란 인물에게 작용하고 있다.[72]

---

71) "往事凭誰問, 荒山土一丘. 恨深精衛死, 魂斷杜鵑愁. 故國何時返, 江樓此日遊. 悲凉歌數闋, 殘月荻花秋."(『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172면)
72) 소재영, 「임제소설의 문학사적 위상」, 『국학연구론총』 2, 택민국학연구원, 2008,5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원생몽유록」에는 몽유 이후에는 몽중의 허구적인 설정을 연장하고 그것을 작품의 결구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는 몽유자 말고 그 공간에 대해 전해 듣고 자기 감상을 펴는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해월거사이다. 작가의 처지에서 보자면 몽유자는 사육신 사건에 접근하기 위한 허구적인 자아인 반면 해월거사는 사육신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허구적 자아이다. 각몽이후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해월거사를 통해 원자허의 몽유 과정을 전체적으로 총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해월거사의 총평은 「원생몽유록」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의식이며, 당시대를 살았던 작가 임제의 거침없는 평가라할 수 있다.[73]

따라서 이들은 모두 작가의 분신이면서 작가의 목소리는 주로 후자를 통해서 드러나 있다. 해월거사의 말을 통하여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자허의 벗 해월거사는 꿈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여 말했다. 예로부터 군주가 사리가 어둡고 신하가 어리석어 끝내 망국에 이른 일이 많았지. 지금 그 임금을 보건데 필시 현명한 군주요. 그 여섯 사람 또한 모두 충성스럽고 의로운 신하로군. 이처럼 훌륭한 신하들이 이처럼 훌륭한 군주를 보필했거늘 어찌 이처럼 참혹한 일을 당했단 말인가? 아아! 어쩔 수 없는 형세 때문인가? 어쩔 수 없는 시운 때문인가?[74]

위 글을 보면 “군주가 사리에 어둡고 신하가 어리석어 끝내 망국에 이르고만 일이 많았지”구절은 16세기 조선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어리석은 신하는 동서의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훌륭한 신하들이 이처럼 훌륭한 군주를 보필했거늘 이 구절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인 사육신을 높이 사고 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현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신하와 사육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월거사를 통해서 임제의 비판적 의식을 알 수 있다. 충신들이 아닌 자들이 정치권력을 두고 싸우고 있는 당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불합리한 세조의 왕위찬탈을 임제는 해월거사의 시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참조.

73) 이병철, 「임제의 원생몽유록 재고」, 한민족문화연구 제24집, 2008, 131면 참조

74) “子虛之友海月居士, 聞而悲之曰:“大抵自古昔以卒, 主暗臣昏. 卒至顚覆者多矣, 今觀其主, 想必賢明之主也, 其臣六人者, 亦皆忠義之臣也, 安有以如此等臣, 輔如此等主, 而若是其慘酷者乎? 嗚呼! 勢使然耶?時使然耶?”(『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174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만고에 슬픈 마음 일색이어늘
긴 하늘에는 한 마리 새가 지나가네.
찬 안개는 동작대 에워싸고
가을 풀은 장화대 뒤덮엇네.
요순은 아득히 멀거늘
탕왕과 무왕은 참 많기도 하지.
달 밝은 상수 넓기도 한데
시름 속에 「죽지가」를 듣네.[75]

해월거사가 읊은 시는 추상적으로 마무리된다. 시상은 만고의 슬픈 마음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은 동작대(銅雀臺)와 장화궁(章華宮)을 통해 표출되는 인간사의 허무의식에 근거한 비회의 정조가 요순탕무로 대표되는 왕위 찬탈의 역사 대한 강개한 분노와 결합하였다. 상수와 「죽지가」 소리로 표상되는 지사의 시름으로 이어져 나간다. 동작대와 장화궁은 영화로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이 덧없음을 상징하는 문학적 기호다. 복건자가 요순탕무를 적인의 효시라고 불렀던 것처럼 역사 모순에서 비롯되는 비분을 대변하고 있다.[76] 이 말을 정리하면 명분과 의리 없이 남의 자리를 빼앗는 다면 계속 비판의 말이 나온다는 말이다. 이 같은 해월거사의 말에 원자허는 훌륭한 말이라고 하면서 동의 한다. 이 시는 세조의 불합리한 왕위찬탈을 임제가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시이다.

이처럼 「원생몽유록」은 왕과 여섯 신하의 과거와 현재적 상황에 초점을 두는 작품이다. 왕과 여섯 신하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란 점에서 현실적으로 나가온다. 그리하여 「원생몽유록」의 배경은 현실적인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되며 왕과 여섯 신하의 슬픈 노래와 시는 왜곡된 역사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 한 방식이 된다.[77]

임제는 「원생몽유록」 사육신의 충심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 조선 대신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임종 전에도 조선을 비판할 만큼 조선사회를 혐오했다. 아들에게 죽기 전에 "천하의 여러 나라가 제왕을 일컫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오직 우리나라만은 끝내 제왕을 일컫지 못하였다. 이

75) "萬古悲凉意, 長空一鳥過. 寒烟鎖銅雀, 秋草沒章華. 咄咄唐虞遠, 紛紛湯武多. 月明湘水濶, 愁聽竹枝歌."(『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박희병, 174면)
76) 전성운 「<원생몽유록>에 구현된 정조(情調)와 문예적 의미」, 『우리어문학회』 28, 2007, 267~268면 참조
77) 조현우, 「원생몽유록의 리얼리티 생성 방식」, 『고소설연구』 10, 한국고소설학회, 2000, 171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와 같이 못난 나라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느냐! 너희들은 조금도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78] 라는 물곡사(勿哭辭)를 남겼다.

당쟁으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불합리한 조선 사회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원생몽유록」의 사육신의 충심은 임제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78) “四夷八蠻, 皆呼稱帝, 唯獨朝鮮入主中國, 我生何爲, 我死何爲, 勿哭.”(『임백호선생필적집』, 羅州林氏白湖公宗中, 228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내성지」에 나타난 작가의식

명은 김수민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걸쳐 살다간 인물로서 그의 생애에서 크게 드러나는 일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향촌사회에서 독서와 저술을 업으로 삼은 지식이다. 그렇지만 그의 사상적 성향은 누구보다 분명하였는데 존왕양이을 평생 지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모를 나타내는 김수민의 작품이 「내성지」이다. 「내성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내성(奈城)은 단종이 유배 갔던 강원도 영월(寧越)의 옛 지명이다. 이에 「내성지」가 단종에 대한 소설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내성지」의 몽유자인 무명자가 내성을 유람하다가 단종과 건문황제를 만나게 된다. 김수민은 건문황제와 명나라의 충신을 등장시켜 「내성지」에서 자신의 존명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내성지」 안에서 무명자는 김수민 자신의 분신인 만큼 무명자를 통해 김수민의 사상이 많이 노출된다.

> 명나라 영력년간의 김씨 성의 무명자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품은 생각이 많아 『춘추』 읽기를 좋아하였다. 위로는 자연의 법칙을 살피고 아래로는 인간사의 잘잘못을 살피어 褒貶與奪하는 과정에서 가필할 것은 가필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한 바를 깊이 생각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약방으로 여겼다.[79]

「내성지」의 몽유자는 『춘추』를 읽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永曆帝'로도 불린 永明王의 연호인 永曆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명나라를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씨 성의 무명자'란 바로 작가인 김수민 자신을 가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무명자 소개글로 작가자신과 무명자가 동일인물임이 잘 나타나 있다.

> 천하 통일한 명나라 황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 명나라 전군을 황실에서 몰아내고자 하네.
> 만력황제의 은혜 아직도 갚지 못함이 한스럽고
> 영릉의 뜻과 사업만은 실로 잊기 어렵도다
>
> 망한 명나라를 그리나니 오늘 주실(周室)의 감회 새로우나

79) "皇明永曆間, 有姓金無名子者, 爲人感慨, 好讀『春秋』書, 仰觀天時之來往, 俯察人事之得失, 褒貶與奪, 潛究乎筆削之間, 以爲經世之藥房."(『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147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시울타리의 천하는 어느 때에 한실(漢室)의 공업을 일으키리오
원하노니, 담비 갖옷을 몸에 두르고
북경 향해 말 달려 변방의 풍상을 막고자 하노라[80]

이 시는 무명자가 건문황제에게 명나라 멸망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읊은 시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가 망하였는데 그런 명나라에 대한 은혜 갚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듣고 건문황제가 감탄하며 무명자에게 조선의 의신(義臣)일 뿐 아니라 명나라의 유신(遺臣)이기도 하구나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무명자는 시의 2연 뜻을 풀어서 건문황제에게 설명하였다.

지난 임진년에 섬나라 오랑캐가 우리를 침략하니 온 나라가 놀라 소란하였는데, 만력황제께서 지극히 어지심으로 군대를 조선으로 출정시켜 왜구를 정벌하셔서 조선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혈기 있는 무리는 골수에 사무치는 감격이야 어떠했겠습니까? 불행히도 시연이 곤궁하여 병자년 오랑캐의 변고에 이르러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효종대왕만은 크게 이루려는 뜻을 떨쳐 일어나시어, 선대의 현신 송시열과 형남기재를 대하듯 흉금을 터놓고 독대하니, (송시열)은 북벌하려는 계획을 은밀히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과 사업이 무르익기도 전에 (효종이) 갑자기 승하하시니, 이는 조선의 군신들이 지금까지도 원통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81]

이 말로 보아 무명자는 명나라를 존숭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존왕양이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무명자가 연회가 끝날 무렵에 지은 「수위가두」 시를 살펴보면 무명자의 존명의식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어짜 살아서 욕되랴
죽어 영광스러움만 같지 못하니
누가 알았던가, 위험에 임하고 난리에 나아가

---

80) “神州一統入滄桑, 欲把三軍出鳳凰. 萬曆皇恩嗟未報. 寧陵志事實難忘. 風泉此日懷周室, 荊棘何時起漢光. 願得貂裘身上着, 驅馳遼薊禦邊霜.”(『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13~214면)

81) “往在壬辰, 島夷寇我, 擧國駭盪, 實蒙神皇之至仁, 出師東征, 再造藩邦, 凡在血氣之倫者, 鏤骨銘心之感, 爲如何哉? 不幸時運所迫, 至于丙子虜變, 乃有所不忍言者, 惟我孝宗大王憤發大有爲之志, 與同德先正臣宋時烈幄對荊南, 密贊北征, 志事未半, 弓釼遽遺, 此東土君臣之所以秪今忍痛含寃者也.”(『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14~215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로움 취하고 목숨 버릴 줄.
황조의 군자를 보니
동조의 열사를 다시 보니
천고의 늠름한 명성이라
길이 천자를 호위타가
내성군에 와서 모였네.
천자를 조회하니
도산은 높고
금장강은 맑아라
강호에 잔치 베푸니
가을 달 분주하고 어룡이 놀라네
당하에 북 치고 종 울리고
누상에는 술내고 호드기 부노라니
애오라지 충정을 쏟아내네.
함께 춘추의 대의를 지키나니
어느 때나 황제의 명나라를 회복하리오.[82]

김수민이 읊은 시이다. 앞의 구절을 살펴보면 단종과 건문황제 그리고 그의 충신들의 상황을 시로 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간 구절에는 내성에 모여 연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함께 춘추의 대의를 지키나니, 어느 때나 황제의 명나라를 회복하리오"에 자신의 춘추대의 의식과 명나라에 대한 존명의식이 드러나 있다.

「내성지」에서 김수민의 존명의식이 드러나는 인물은 앞서 말한 건문황제 외에 명나라 충신 방효유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방효유는 중국 명나라 때 송염의 문하에 들어간 뛰어난 인재였다. 1402년 연왕이 황위를 찬탈한 뒤 그에게 도와줄 것을 명하자 거부하였다. 그래서 연왕은 노하여 그를 처형하였다고 한다. 「내성지」가 주목되는 것은 18세기에 와서 육신들을 명대 방효유에 비견한 것은 처음 나타나고 謨猷있다는 것이다.[83]

또한 방효유는 「내성지」의 연회가 포폄여탈하는 것이 『춘추』와 마찬가지일

82) "寧以生而辱, 不若死而榮. 誰知臨危赴亂, 取義捨其生. 試看皇朝君子, 更看東朝烈士, 千古凜名聲. 長衛朝天子, 來會奈郡城. 朝天子, 刀山高, 錦水淸. 宴設江湖, 秋月奔走魚龍警. 撾鼓撞鐘堂下, 進酒吹笳樓上, 聊以瀉忠精, 共扶春秋義, 何日復皇明."(『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72~273면)

83) 신해진, 「내성지의 창작동인 탐색」, 국학연구론총제 1집, 택민국학연구원, 2008, 27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줄은 어찌 알았겠냐는 이야기와 함께 『춘추』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이에 무명자와 건문황제, 단종은 춘추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대목에서보아 「내성지」의 연회를 『춘추』에 비유를 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연회에 김수민의 사상이 들어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건문황제가 방효유를 백이, 숙제와 같은 충신이라고 하는 대목을 보아 방효유를 사육신과 같은 충신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회 마지막에 방효유가 읊은 시의 몇 소절을 살펴보면

옛날 태조의 창업하심이여
원나라 오랑케 왕위를 혁파하셨네
하늘에서 대명을 본받으니
사해에 대가를 이루었네[84]

이 구절을 살펴보면 원나라 오랑캐들을 혁파하고 명나라가 하늘의 대명을 받아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방효유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문득 북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훔치며
고도를 떠나 왔음을 슬퍼하나니
신주는 몰락하여
산하가 눈에 낯설고
말갈 흉노가 들끓으니
얼굴에 똥칠하고 오랑캐 피리 소리 뿐일세.[85]

이 구절 앞에는 연왕의 왕위 찬탈 사건과 그 일과 같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암시 한다. 바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건국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그 슬픔이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중국의 충신인 방효유의 시도 김수민의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장치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무명자는 김수민과 같이 주자학을 중시하는 서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천도가 옳은 것이냐?라는 철현의 질문에 무명자는 아래와 같이 말을 했다.

---

84) “奧昔太祖之刱業兮, 革胡元之閏位. 體大明於中天兮, 作一家於四海.”(『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73면)

85) “忽北望而攬涕兮, 悲忝離於古都. 神州陵沉兮, 擧目異於山河, 羯奴喧騰兮, 雜屎面而胡笳.”(『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74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기는 천지의 부모이고 천 또한 기 안의 사물이니, 기의 운수가 관여하면 천이 은밀히 도우려 해도 어쩔 수 업슨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천이 안정되고 기가 일로 돌아가면 이가 이에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폐하와 대왕께서 처음을 캐고 끝을 돌이켜 복위하셨으니 이는 '천보다 먼저 해도 하늘이 어기지 않고, 천보다 뒤에 해도 천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인성은 본디 선하니 슬프고 우울한 기운은 마침내 중담하고 화평한 기상만 같지 못합니다.[86]

무명자는 "기(氣) 안에 천(天)이 포함되어 있어 기의 운수가 다하면 천도 어쩔 수 없지만 기가 일로 돌아가면 결국 이(理)도 회복된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주자의 이성론적 세계관과 상통하고 있다.[87] 이는 김수민이 서인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성지」의 몽유자 무명자가 각몽을 할 때도 단종보다는 건문황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효유의 시가 끝나자 "슬프다 건문황제, 억울할사 노산대왕" 단가(短歌)를 시작하는데 조선의 왕보다 명나라 황제 이름을 앞에 두어 자신의 사상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충신들의 시를 건문황제가 칭찬한다거나 연회가 끝나고 단종이 건문황제에게 같이 가자는 발언을 한 것 역시 존명의식를 바탕으로 하는 말이다

이처럼 김수민은 무명자를 통해 자신의 사상인 춘추대의와 존명의식를 강조 하였다. 그리고 「내성지」를 통해 조선과 명나라 인물들을 통해 청나라를 비판하였다. 김수민은 「내성지」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

86) "不然, 理氣天地之父母, 天亦氣中物事, 氣數關頭, 天欲冥佑, 無如之何, 雖然, 天定氣反乎一, 而理乃復焉, 故陛下暨大王, 原始反終而復位, 則此非'先天而天不違, 後天而奉天時'者乎? 兼人性本善, 悲愁紆鬱之氣, 終不如冲淡和半之象."(『역주 내성지』, 신해진 역주, 263~264면)

87) 손종태, 「奈城誌의 창작배경과 역사담론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7면 참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몽유록 「원생몽유록」과 「내성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작가의식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작가인 임제와 김수민의 생애와 작품 서술배경을 고찰하였다. 「원생몽유록」이 창작 되었던 당시에 사림파들은 전조의 낭관 자리를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의 중용 문제로 동서로 갈라져 분열되어 있었다. 임제 조정의 당쟁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특히 조정 신하들이 편당을 지어 몰려다니는 모습이 임제의 호방한 성격과 맞지 않았다. 이 때 임제는 박계현을 통해 「육신전」을 접하게 되면서 사육신의 절의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원생몽유록」을 통해 나타냈다.

「내성지」가 창작 되었던 시기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화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 지난 때였다. 하지만 김수민은 자호를 '명은'이라고 지을 정도로 명나라에 대한 춘추대의를 지켜나갔다. 18세기 초에 단종복위운동과 배식단 문제가 제기 되면서 춘추대의를 견지한 노론계의 김수민은 단종과 사육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단종과 사육신, 명나라 건문황제와 충신들의 이야기인 「내성지」를 저술하였다. 「내성지」에서는 충신들의 절의를 자신의 소중화주의에 빗대어 표현했는데 여기서 「내성지」의 저술의도를 알 수 있다.

「원생몽유록」과 「내성지」는 시대적 배경과 저술 동기의 측면에서 공통점과 자이점을 지녔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육신전」을 읽고 사육신의 충심에 감동을 받아 그들의 충절을 기리고자 했던 것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원생몽유록」은 당대 조정의 당쟁을 개탄하며 충절의 대표자로 사육신을 내세워 당대의 조선 상황을 비판한 작품이다. 반면 「내성지」는 작가인 김수민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지은 작품은 아니다. 김수민은 일련의 사건들로 단종과 충신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신의 의리정신과 맞닿아 있는 그들에게 대의명분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사상에 어긋난 행동을 한 세조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작품을 지었다.

다음으로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의 등장인물을 통해 작가의식을 비교해 보았다. 「원생몽유록」과 「내성지」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단종과 사육신, 남효온이 있다. 단종은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처연함을 느껴 구슬프게 시를 읊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성지」의 단종은 건문황제의 등장으로 황제에 대한 존숭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육신은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에서 단종에 대한 충절과 자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한탄함에 대한 시를 읊는다. 하지만 「내성지」에서 사육신은 명나라에 대한 충절 시도 읊음으로써 작가 김수민의 존명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남효온은 「원생몽유록」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복건자로 등장시켜 몽유자를 연회에 초청하고 자신의 충절을 시로 표현하는 등 비중이 크지만 「내성지」에서는 생육신 중 한사람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충절 시를 읊는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 등장인물 비교를 통해 작가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분신인 몽유자 분석을 통해 작가의식을 탐색해 보았다. 「원생몽유록」 몽유자인 원자허는 강개한 선비로서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그는 가을밤에 달빛을 이용하여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고 꿈 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 사회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한탄한 처지를 말하면서 시를 읊었다. 「원생몽유록」은 몽유자뿐만 아니라 해월거사를 등장시켜 「원생몽유록」을 통해 작가의식을 더욱 확고히 했다. 해월거사는 당쟁으로 조정이 갈라져 충신은 없고 이기적인 자가 권력을 차지한다고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원생몽유록」을 관통하는 임제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내성지」의 몽유자인 무명자는 『춘추』 읽기를 좋아하고 명나라 건문황제에게 조선이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갚지 못한 것에 대해 한스럽다고 말하는 인물이다. 김수민이 자신을 가탁한 무명자 외에도 명나라 건문황제, 방효유를 등장시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거듭 강조 되었다.

「원생몽유록」과 「내성지」는 이처럼 단종과 사육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구별된 작가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생몽유록」은 불합리한 세조의 왕위 찬탈과 사육신의 충심을 내세우면서 조정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반면 「내성지」는 단종과 그의 충신들, 그리고 건문황제와 그 충신들의 충심을 시로 표현해 작가의 존명의식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원생몽유록」과 「내성지」의 비교를 통해 몽유록의 특징을 살피고 같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사회사와 비교해 살폈다. 이 연구가 몽유록 비교연구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길 기대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05.
나주임씨백호공종중, 『임백호선생필적집』, 羅州林氏白湖公宗中, 2006.
박희병, 『조선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 2005.
박희병·정길수 편역, 『이상한 나라의 꿈』, 돌베게, 2013.
신장섭, 『명은 김수문 문학연구-기동악부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1996.
신해진, 『역주 내성지』 보고사, 2007.
신해진,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998.
양언석, 『몽유록소설의 서술양식연구』, 國學資料院, 1996.
우쾌재 편, 『원생몽유록-작자 문제의 시비와 의혹』, 박이정, 2002.

김인아, 「백호 임제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김정녀, 「내성지의 공간과 기억의 재구성」, 『민족문학사연구』 49, 2012.
소재영, 「임제소설의 문학사적 위상」, 『국학연구론총』 2, 택민국학연구원, 2008.
손종태, 「奈城誌의 창작배경과 역사담론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신해진, 「내성지의 창작동인 탐색」, 『국학연구론총제』 1, 택민국학연구원, 2008.
신장섭, 「한국 악부시의 특질과 김수민의 기동악부」, 『겨레어문학』 15,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신재홍, 「명은 김수민의 내성지 검토」, 『국어국문학』 105, 국어국문학회, 1991.
육홍타, 「16세기 몽유록 시론」, 『동양고전연구』 19, 2003.
이상구, 「17~19세기 한문소설의 전개양상」,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이병철, 「임제의 원생몽유록 재고」, 『한민족문화연구』 24, 2008.
임보연, 「백호 임제의 변새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전성운, 「<원생몽유록>에 구현된 정조(情調)와 문예적 의미」, 『우리어문학회』 28, 2007.
정용수, 「원생몽유록의 문학적이해와 역사적 담론」, 『한문교육연구』 2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03.
정출헌, 「<육신전>과 <원생몽유록> -충절의 인물과 기억서사의 정치학」,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조현우, 「원생몽유록의 리얼리티 생성 방식」, 『고소설연구』 10, 한국고소설학회, 2000.
조상열, 「백호 임제 문학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